

청소년의 자기이미지, 교복변형과 의복선호와의 관계 연구

이 명 희 · 송 은 영*

성신여대 의류학과 교수,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청소년의 자기이미지와 교복변형유무, 의복스타일 선호와의 관계를 조사하며,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교복변형유무 및 의복스타일 선호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서울근교의 여자 중고등학생 303명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포, 적률상관관계, t검증, 일원변량분석 및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사용하였다.

자기이미지와 의복스타일 선호도의 관계를 보면 지적이고 여성적인 자기이미지가 높을수록 정장스타일과 단정한 옷을 선호하였다. 개성적, 지배적, 유행에 민감한 이미지가 높을수록 남의 눈에 띄는 옷을 선호하였으며, 단정한 옷은 선호하지 않았다. 활동적이고 현대적인 자기이미지가 높을수록 힙합, 세미힙합, 빈티지 룩, 복고풍을 선호하였다. 활동적인 자기이미지가 높을수록 단정한 옷을 싫어하는 반면, 현대적인 자기이미지가 높을수록 단정한 옷을 선호하였다.

교복변형을 경험한 여자 청소년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개성적이고, 현대적이며 유행에 민감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또한 교복변형을 한 청소년은 변형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빈티지 룩, 복고풍, 유명상표의 옷, 눈에 띄는 옷을 더 선호하였고, 변형을 하지 않은 집단은 정장스타일과 단정한 옷을 더 선호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캐주얼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고, 트렌드 중에서는 세미힙합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에 힙합, 빈티지 룩, 복고풍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세미힙합과 캐주얼스타일을 더 선호하였고,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복고풍을 더 선호하였다.

용돈이 많은 집단은 유명상표의 옷을 가장 선호하였고, 용돈이 적은 집단은 많은 집단보다 단정한 옷을 더 선호하였다. 의복지출비가 많은 집단은 적은 집단보다 복고풍, 정장스타일, 빈티지 룩, 남의 눈에 띄는 옷을 더 선호하였다. 단정한 옷은 의복지출비가 적은 집단이 많은 집단보다 더 선호하였다. 또한 용돈과 의복지출비가 많은 집단은 적은 집단보다 교복변형을 한 빈도가 더 높았다. 교복변형의 내용은 상의의 크기를 줄인 경우, 치마의 품, 허리, 길이 등 치마를 줄인 경우, 상하의의 크기를 모두 줄인 경우가 각각 1/3 정도씩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

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적이며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청소년들은 정장스타일을 선호하였으며, 지적이고 현대적인 청소년일수록 단정한 옷을 선호하였고, 개성적이고, 유행에 민감한 이미지의 청소년들이 교복변형을 많이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이미지는 의복스타일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